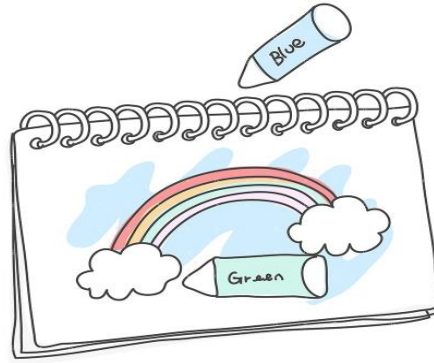


국내 주식 투자전략

긍정적인 흐름 지속 전망



KOSPI,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로 2,010선 회복

국제유가 하락세 진정에 힘입어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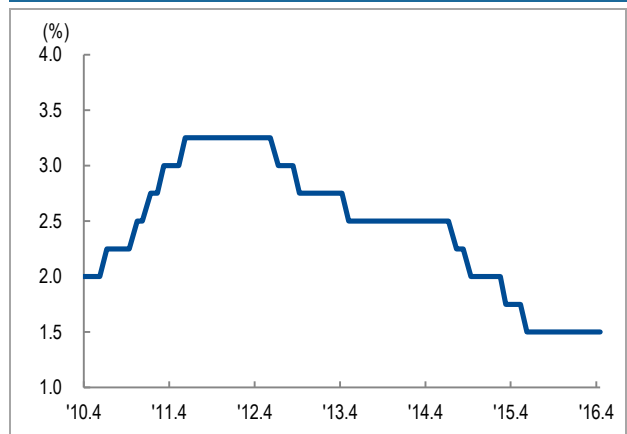
- KOSPI가 3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이며 2,010선을 회복하였다. 산유국들의 생산량 동결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영 석유회사의 파업에 따른 쿠웨이트의 원유 생산량 감소 전망에 국제유가가 장중 낙폭을 만회한 것이 투자심리 회복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상승을 견인하였다.
- 한편, 전일 개최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기준금리가 현 수준(1.5%)에서 동결되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5%로 낮춰진 이후 10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금통위에 앞서 지난 15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정책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금리 동결이 어느 정도 예견된 바 있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2%대로 낮아지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상반기 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KOSPI 일봉 차트



자료: QVHTS,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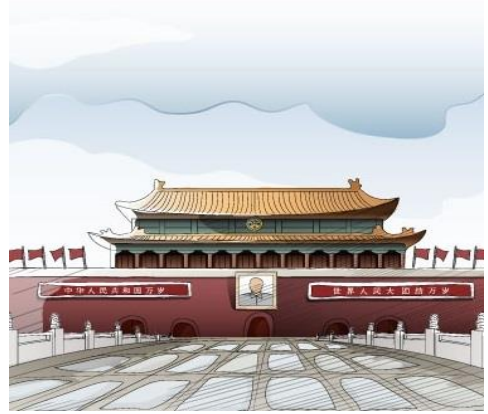
기준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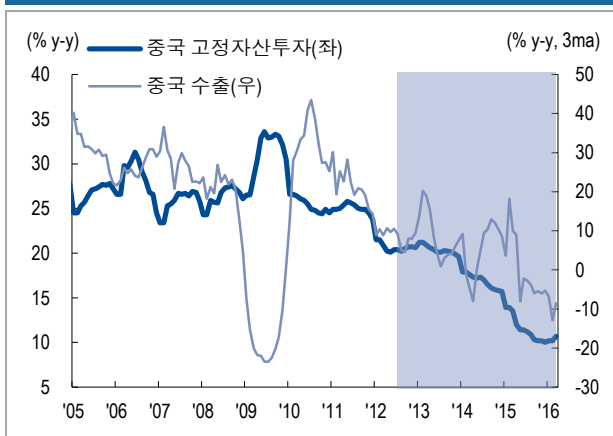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유지

- 최근 KOSPI 2,000선 돌파 및 안착에 힘을 실어준 주된 요소로는 1) 중국의 경기회복 기대감과 2) 국제유가의 반등을 꼽을 수 있다
-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된 경제지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산당 정권이 5년씩 연임하는 관례를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집권 4~5년차인 2016년과 2017년은 시진핑 정부로서는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과거에도 집권 4~5년차에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평균 20%를 넘어섰다는 점과 2016년 3월 양회에서 아시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재정확대를 밝혔다는 점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외국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가 +11.3%(y-y)로 급증하는 등 중국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 이처럼 중국의 매크로 개선세가 가시화되면서 선진국 대비 신흥국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최근 EMBI Spread나 CITI Macro Risk Index, VIX 등 리스크 관련 지표들이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결론적으로 국제 유가의 하방경직성 강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Risk-on) 속에 중국의 투자 사이클 회복 및 경기둔화 우려감 완화 등을 감안해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 다만, 지난 18일자 WM Weekly 국내 주식 투자전략 ‘오랜만에 기대되는 1/4분기 실적시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일(21일) 실적발표 예정인 기업(POSCO, 포스코대우, LG화학 등)들이 최근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소재/산업재 종목군이라는 점에서 실적발표 이후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할 소지가 있어 단기적으로 업종별 순환매를 염두에 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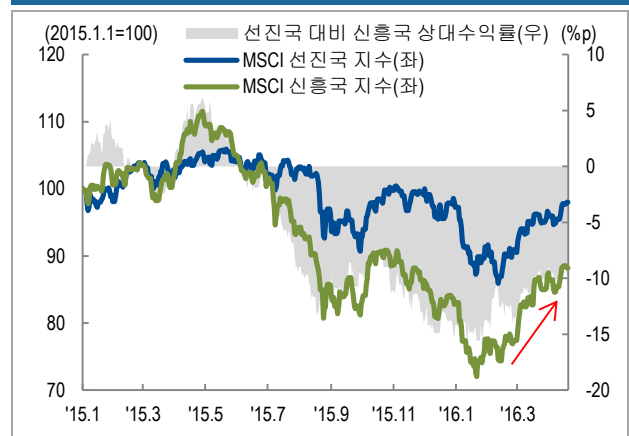


중국 수출과 고정자산투자



자료: CEIC,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신흥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



자료: Thomson Reuters,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